

주가가 오르는 이유도 이것과 아주 비슷합니다.

지금은 1년에 10억 원도 못 버는, 심지어는 적자가 나는, 그래서 배당도 안하는 허허벌판 황무지 같은 회사지만 지금 개발중인 기술이 성공하면 1년에 1,000억 원도 벌고, 주가가 주당 1,000원 씩 배당도 할 것 같고, 그 회사의 주식은 1주에 10,000원까지도 오르기도 합니다.

1년에 1,000원 배당하는 주식이니깐 그 한 주식을 매년 가지고 있으면, 그 돈을 은행에 정기예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.

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이유를 요약하면 <그 회사가 미래에 돈을 벌면 그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것이다> 라는 가정을 믿고 사람들이 계속 그 회사 주식을 사고, 또 사니깐 오르는 것입니다.

↑ 결국, '배당금' 때문에 주식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이다.

만약 미래에 그 회사가 돈을 벌어도 배당을 안하면 어떻게 하나요?

물론 한 해, 두 해 그 회사가 배당을 안할 수는 있는데요. ^{↖ 주식회사는 영업을 통해 쌓아두는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.} 영원히 안할 수는 없습니다. 배당 안하고 쌓아두면 그 돈을 나중에 더 많이 배당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그 회사 주식을 사람들은 사는 것입니다.

결국 주식이 오르는 것은 미래에 그 회사가 돈 많이 벌어서 배당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입니다.

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회사라도 그 회사 정관에 '우리 회사는 절대 배당하지 않습니다' 라고 적어 놓으면 그 순간 그 회사 주식은 0원이 되고 못 오릅니다.

생각해보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주식은 마치 월세도 못 받고 들어가서 장사하는 상가 같은 거라서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뭐하겠어요.

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

예상보다 배당을 계속 의류거나 자극하지 않고

배당을 적지할 것 같다고 여겨질 때, 가진 있던 주식을 판다.